

다산포럼

시민 역사학자 시대의 개막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전경기대교수

“몇 번의 강의를 듣고 인터뷰 실전 연습을 한 후 우리는 세 명이 한 팀이 되어 한 어르신 부부의 생애와 40년 간의 배 농사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22세에 만나 84세가 될 때까지 62년간 서로 배려하면서 응원하며 살아오신 두 분, 아름답게 빛나는 미소와 삶의 지혜는 달고 싶을 만큼 제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치를 지적 유산으로 남기는 작업이라니 생각할수록 보람이 느껴졌습니다.”(『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2』 중에서)

지역의 도서관에서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여 기록할 기억 수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모한 한 시민이 기억 수집가가 되는 과정을 쓴 글이다. 이 글에는 기억 수집가가 된 데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도 담겨 있다. 최근 지역의 도서관, 문화원에서 시민 대상으로 구술 조사와 글쓰기 교육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육 수요자들에게 시민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하게 하고, 채록한 내용

을 책으로 묶어 낸다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이 주목되는 것은 전문 연구 분야인 지역학 연구 조사 및 연구서 발간에 시민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이 시민 역사학자가 되어 지역사 연구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2019년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었다. 경기도 파주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휴전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에 2000년도 초까지 미군 부대가 주둔하였다. 미군이 주둔한 지역은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주민들은 미군기지에 취직하거나, 미군기지와 미군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였다. 기지촌 여성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손가락이다 파주 지역 기지촌 주민의 아픈 삶이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파주 중앙도서관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역 시민 채록단을 모집하고, 그들이 파주에 오래 거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술 채록하여, 시민의 생애사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1부 목차가 ‘가슴에 묻고 눈에 새긴 나의 불일촌’이다. 제목에서부터 지역민의 아픔이 배어있다. 목차 ‘하루소보이 두 번째 고향이야기’ ‘슬퍼서 사랑했던 폴라로이드 인생 샷’ ‘사단 앞 오 대재,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세월’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역 시민 채록단에 참여하여 시민 역사학자가 된 시민들이 주민의 기억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기억을 하나씩 되살려 지

역의 역사를 복원한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특정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역사는 사료에 대한 엄밀한 비판,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구술을 통해 재구성된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역사인가? 주민의 기억은 정확할까? 기억에는 착오도 있고, 거짓 진술도 있다.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역사, 특히 개인의 생애사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구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개인 생애사와 마을사는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역사라기보다 그 개인이 기억하는 역사일 것이다. 따라서 구술 채록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와 문헌 자료와 비교하고, 사료 비판을 거칠 필요가 있다.

구술 자료가 이 같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술 자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료가 지니는 속성이고 한계이다. 그러므로 시민이 주민의 기억을 채록하여 기술한 구술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헌에 남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사족, 아직은 서투르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의 역사를 진지하게 조사하고 기술하는 시민 역사학자의 역사서를 보고 싶노라면,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역사를 쓰는 일부 역사학자의 역사책보다는 역사적 진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

청춘 특·특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김성하 조선대 사각디자인학과 2년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며 날로 발전한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가 매번 순조롭고 이로운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때로는 긍정적이었던 교류의 시작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나는 오랫동안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아닌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가령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책이 높은 분에게’ 등 타인과 나의 관계를 일선에 정의해 선을 긋고 고는 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관계를 망칠 것이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인 응을 자처하거나 내 생각과 감정을 2순위에 두었다. 돌아보면 이런 회의적인 태도가 나에게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상대와의 사이를 정의하는 틀에 나를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본성을 외면해야 했

고, 이는 감정과 의견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하지 못한 관계는 결국 탈이 난다. 어느 한쪽은 응을 자처하며 열등감과 자아의 불안정함에 휩싸이게 되고 다른 한쪽은 독단이 습관처럼 굳어지게 된다. 이런 기울어진 관계에서 쌓이기 시작하는 불편함은 뒷말과 스트레스가 되고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터지고 만다. 나 또한 앙금을 쌓아 두는 습관으로 인해 그렇게 지기고 싶었던 소중한 관계가 더욱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해봤다.

문득 불쾌하게 끝났다고 느꼈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봤다. ‘그때 나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했다면’ ‘내 생각을 정중히 말했다면’ 적어도 서로 찝찝함을 남기거나 단절하고 말았던 극단적인 결말을 피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속에는 관계 유지라는 명목으로 누군가와 부딪혀서 대화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타인을 판단하고 거리를 두었던,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편협한 사고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런 경험과 생활을 통해 세상에 나와 퍼즐처럼 꼭 들어맞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우리는 조율을 통해 서로를 맞춰가는 융통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연히 퍼즐과 달랐다. 그래서 인간관계란 한편의 일방적인 ‘맞추기’가 아니라 함께 ‘맞춰 가기’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서로는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대는 자라온 배경부터 시작해 대화에서 선택하는 단어, 사소한 어투 하나하나마저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다가서는 대화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 누군가에게는 직설적인 표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드러운 대화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자아와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하고 솔직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의 방법을 고민해 보자. 말의 본질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애써 숨기지 않되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소통은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열쇠다. 상대를 고려해 다양한 소통의 자세를 고민하고 적용해 나갈수록 여러 상황에서 신뢰의 문을 열어 관계에 유용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나아가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익숙해지면 마음의 먼지를 털어 내는 게 더 이상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게 된다.

먼지를 털고 나면 더 밝고 깨끗한 마음이 남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관계는 하나의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기에 의식적으로 점검해 가며 유연하고 건강한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보자.

기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오상욱 국민연금 목포지사 과장

얼마 전 가까운 인척이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다. 목향이 가득한 집안 분위기와 사뭇 다른 벽시계가 눈에 거슬렸다. 초침만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시침과 분침이 없다. 저놈이 불골은 초라해도 자식보다 효자라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는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것이 회한의 시작일까 내게 채워진 지천명(地天命)의 완장 때문일까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자식의 불효를 애써 감싸주려는 어르신의 내리사랑이 시리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비경의 시대에 우리는 ‘효’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자식 사랑은 쉬워도 부모를 사랑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이다. 세대 간 가치가 달라서 그런 것이라고 세상은 내게 받아들여라 한다. 부모는 세대 차이가 없고 가치가 다르지 않아서 절절히 내리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듯하여 가슴이 아리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듯싶다. 수많은 문학이 ‘치사랑’을 삶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미화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요즈음 젊은이들은 보은을 어버이날에 응돈이나 드리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듯하여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여 공자는 “집에서 기르는 말도 먹이기가 하지 않느냐.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느냐?”며 겉치레를 경계(警戒)했는지 모른다. 멀건 죽을 부모님 상에 올리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이 깃들어야 효가 되고 수백만 원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더라도 공경심이 없다면 효가 아니라는 가르침이다. 즉,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돈이나 선물로 도리를 다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 준 아주 특별한 인연이다. 여덟 섬 너 말의 젖을 먹여 나를 키우신 분이 아닌가? 강보에 싸여 있을 적에는 어머니가 내어주는 사랑을 아낌없이 받아 맑게 웃어 주고 아장아장 걸음마로 쪼르르 달려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드리자. 고사리손으로 셈을 하고 연필을 들어 감사 글도 써 보자.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여 사랑스러운 반려자를 얻어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려 귀여운 손자의 방긋 웃는 모습을 보여 드리자. 늙은 부모님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식 자랑거리를 부족함 없이 선물하자. 가족 공동체에서 익힌 사랑의 기술이 발휘되어 세상

에 펼쳐지면 그것이 곧 사람의 향기 효도가 아닐까 싶다. 누구나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속뜻을 음미해 보자. 사랑 되돌려 주기를 통해 형성된 가족 간의 화목이 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익힌 사랑 올리기는 가족을 미소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공동체를 미소 짓게 하는 나눔의 씨앗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 ‘효’, 이것이 세상과 이별 준비 중인 어르신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 지금은 부모님이 계셔 사랑을 베풀어 주니 마냥 기쁘지만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진 해가 부모님의 현재가 아닌가? 어르신 인생도 비디오 되감기처럼 지나온 시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전부를 되감지 못할지라도 어느 한 시절, 한순간만이라도 말이다. 불행히도 이창준의 소설 ‘눈길’이 스쳐 간다. 어머니에 게 빛진 것이 없다면 반항하는 아들, 그 아들에게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죄책감에 당신의 소망을 끝까지 숨긴 채 아들과 슬픈 동행이 끝나고 혼자서 돌아오던 눈길... 굵이 굵이 외진 산길을 오목 디터 놓은 아들의 발자국만 밟고 돌아오면서 어머니는 혼잣말한다. “내 자식이야,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고 복 받고 살아라!” 눈물을 떨구고 차가운 눈길을 걸어오던 슬픈 운명의 어머니... 어쩌면 이 시대를 살 아온 우리 모두의 어머니 모습이 아닐까?

社說

광주 부품기업 미래 차 전환 전폭적 지원을

광주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 차 전환 대응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차·수소차 보급 가속화로 내연기관 부품 관련 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양향자(광주 서구 을) 의원이 중 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조 혁신 지원 연구개발(R&D)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30억 5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사업 전환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영세 부품업체의 기술 개발 자금을 정부가 지원 하는 것이다.

현재 미래 차 사업 전환이 절실한 국내 내연기관 부품업체는 8500여 개에 달한다. 광주에서도 중견 기업 18개와 중소기업 550개 등이 이 예산을 예타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미흡한 예산 지원 탓에 지난 3년간 사업 전환이 승인된 자동차 부품기업은 16개, 광주에서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부품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미래 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내연차량 부품업체들이 미래 차 부품을 생산하려면 지속적인 연구와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 미래 차 관련 부품 한 개를 개발하는 데 평균 13개월, 비용은 13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미래 차 전환 의향을 밝힌 부품기업 100개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역량 강화 예산 135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 차 전환에 실패하면 자연 도태도 산업체가 속출하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흡한 완성차 공장의 지역 내 부품 조달 비용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부품업체들의 성공적인 미래 차 전환이 지역 경제의 성과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정부와 광주시가 부품업체들의 사업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사죄, 일본 정부 되새겨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紀夫) 전 일본 총리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속죄의 뜻을 거듭 밝혀 주목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엇그제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을 방문해 방명록에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학생들의 영혼이 영원히 평온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기념관 관계자들을 만나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한국 조선인들을 차별한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당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더는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일본이 계속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과거사 대응 태도와 같은 전쟁 기해자 ‘무한책임론’을 주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친한·지한파 인사로 통하는 그의 행보는 한·일 과거사를 부정해 온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의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한국에서 발언 때문에 귀국을 반대하는 극우파의 공세를 받고 있음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계 은퇴 후인 지난 2015년 일제 강점기의 어두웠던 역사가 재현된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했고, 2018년에는 경남 함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 꿇고 사죄했다. 지난날 24일에는 진도 고군면 애덕산에서 열린 위령제에 참석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중 단 없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진성성과 전쟁 기해자 ‘무한책임론’은 한일 양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기해자의 진성성은 사과이고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해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없이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되새겨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위기의 시대를 가장 잘 극복한 대통령의 롤 모델로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꼽힌다.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국론을 결집,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어 났기 때문이다. 소통의 형식은 노변담화(fireside chat)로 불리는 라디오 생중계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였다. 격식을 차리지보다 힘든 시기를 함께 건다는 사람을 끼리 편하게 나누는 대화 형식의 노변담화는 역대급 청취율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신뢰의 정치

그의 소통 노력은 노 변담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에게 수 천 통의 편지를 직접 쓰기도 했고 하반신이 불편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며 국민과 직접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여당이나 지지층에만 의지하지 않고 전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한 그의 노력은 힘든 시기를 보내던 국민에게 희망의 버팀목이 됐으며 미국을 세계 제1위의 초강대국이라는 반석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의 진심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일으켜 세운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그 어

는 때보다 엄중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의 충돌을 정점으로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의 상황은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다.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금리, 환율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특히 물가 폭등 국면 속에 부동산 경기와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점차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위기 국면을 풀어나갈 윤석열 정부의 역량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정권 출범 초기인데도 실적이 국정 운영으로 윤 대통령 의 지지율은 20%대로 급락했고 여당은 권력 다툼의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은 결국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방법은 진심 어린 소통이다. 진심은 신뢰라는 국정 운영의 자산을 만들어 낸다.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한다. 정치에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새겨야 할 시금치.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시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